

# “불교디자인 40년, 화엄사상으로 이을 터”

## 불교미술 1세대 고현 교수 고별전... 조선대서 개최

현대 불교미술 디자인의 개척자인 조선대학교 고현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고별전을 열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조선대 미술관서 개최된 고별전은 대표 작품 40여점과 함께 학교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고별전에는 ‘불교미술 현대화 40년’과 ‘불교디자인 개척화 40년’ 출판기념회가 함께 열렸다.

고현 교수는 고별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화엄경의 한 말씀인 일체유심조심(一切唯心造 心外無別法)이라는 가르침을 평생의 의지처럼 삼고 살아온 듯 싶다”며, “흔히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고들 하는데 제 그림은 제 마음의 모습이다. 지금까지의 제 마음이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라는 화두를 안고

지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년 교정을 떠나 있어서 늘 ‘영원한 조대인’으로 살아갈 듯 싶다”라고 마지막 회향의 말을 전했다.

이어 조선대학교 서재홍 총장도 고별사를 통해 “고현 교수님의 헌신적인 후학양성과 작품에 대한 열정에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작품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현 교수는 1981년 법정스님과 불일암에서 맺은 인연으로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릭터를 도안했으며, 현재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길상사에서 법정스님 5주기를 추모하는 ‘불일암 추억’전을 열었으며,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조형언어로 현대인



고현 교수 고별전(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에는 동료교수들과 제자들이 모여 불교미술발전을 이어갈 것을 서원했다.

대인과 불교미술이 소통하는 길을 연 작가로 알려졌다. 특히 전통적인 불화의 색상을 벗어나 화려한 현대적 감각의 색채를 통해

불교의 현대적 디자인을 개척한 선구자로 평가 받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금산사, 하안거 포살법회 및 교구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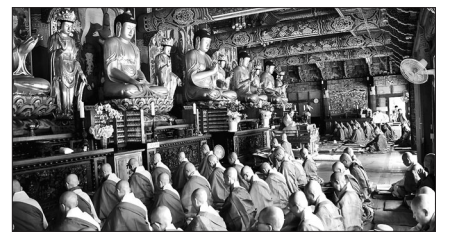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6월 19일 대적광전에서 불기2559년 올미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사진)

87명의 대중스님들이 동참한 이날 포살법회에는 성우스님이 포살법사로 나서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 범망경> 보살심자품, 십중대계, 사십팔경 구계를 설했다.

성우스님은 “포살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수행자로 거듭나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다”며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금산사는 오후 불기2559년 2차 17교구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금산사 본말사 대중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메르스 사태 종식 기원 기도가 진행됐다.

또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9월 18일 ‘처영대사와 조선 후기의 금산사’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또 10월 15일 금산사에서 전국의 합창단 1천여명이 동참하는 전국불교소리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10월 31일에는 개산 1416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하기로 했으며 오는 7월 18일과 19일에는 전주 덕진공원에서 연꽃문화제를 연다. 10월 18일에는 국내 거주 이주민과 일반시민이 참가하는 아시아 문화축제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조정래 작가 “월정사 적송 숲서 집필”



### 2016년 5월 이주...오대산 문화특구 조성 일환

소설 ‘태백산맥’ 저자이자 불자인 조정래 작가(사진)가 2016년 5월부터 평창 월정사 앞 적송 숲에 터를 잡고 집필활동에 들어간다.

6월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조정래 작가는 평창군 진부면 월정사 적송 숲에 거주지와 집필공간을 마련해 이르면 2017년 봄부터 이주할 예정이다. 조정래 작가의 강원도 이주는 월정사 일대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중 하나인 오대산 문화특구 조성과 함께 이뤄졌다.

집필공간이 마련되면 개인 작품 활동과 함께 오대산 문화특구를 찾는 관광객과 문화도들을 상대로 정기강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원도 측은 월정사 템플스테이 등과 연계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조정래 작가는 수년 전부터 매년 여름 강원도에서 집필활동을 펼쳤다. 소식을 접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주를 권유했고 작가도 이에 화답해 결심이 맺어졌다. 작가는 오는 7월에도 알펜시아리조트

트에 머물며 신작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작가는 17일 강원도청에서 마련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특강에서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은 학벌과 물질만을 쫓아왔기 때문으로 이제 잘못된 질서에 대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정신적 풍요에서 행복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불자인 조정래 작가는 맨체스터와 산책으로 하는 건강관리 비법, 컴퓨터를 쓰지 않고 펜으로만 글을 쓰는 이유, 휴대전화를 소유하지 않는 삶의 행복 등도 함께 전했다.

한편, 월정사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 전남 불교문화재 7점, 지방문화재 지정예고

전남지역 불교문화재인 보성 불광사 목조 관음상 등 8건이 6월 8일 전남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됐다.

보성 불광사 목조 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佛光寺 木造 觀音菩薩坐像 및 腹藏遺物)은 조선 후기(1667년) 조성된 목조 관음상으로 조각 양식이 우수하다.

완도 수향사 목조 관음보살좌상(修香寺 木造 觀音菩薩坐像)은 조선 후기(18세기) 조성된 목조 보살상으로 세부 형식이 수준 높고 정제된 조각상으로 18세기 보살상을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곡성 서산사 동종(西山寺 銅鐘)은 1730년 조성된 동종으로 조선 후기 범종의 전형적인 양식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동종

조성과 관련된 연대, 장소, 장인이 기록돼 조선 후기 범종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곡성 연운당 고문서(健雲堂 古文書)는 과거 문서, 호적문서, 소지류, 일기류, 미암일기 등초록 등 일괄문서로 조선 후기 향촌사회와 제도사, 생활사 등을 이해하는 귀중한 기록유산이다.

해남 약수사 불교전적(藥修寺 佛教典籍)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류의보살만행수능엄경 권1~4(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一~四)’ 등 7책의 불교 전적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귀중 희귀본 불서로 서지학적으로나 불교사상사 측면에서 귀중한 자료다.



곡성 서산사 동종

해남 미황사 목조 석가여래 삼불좌상(美黃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은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 삼존불로 조선 후기 17세기 중엽을 대표할만한 불상이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해남 미황사 목조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美黃寺 木造 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은 조선 후기 제작된 지장보살상을 비롯해 시왕, 판관, 녹사 등 25구의 조각상(명부전 봉안)으로 17세기 중엽을 대표할만한 존상이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해남 미황사 목조 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美黃寺 木造三尊像 및 十六羅漢像 一括)은 조선 후기 제작된 석가여래삼존상과 십육나한상을 비롯한 23구의 조각상(응진당 봉안)으로 18세기 중엽을 대표할만한 존상이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제2분과)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진공당 탄성 스님 15주기 추모다례제

조계종 개혁불사의 주역이었던 진공당 탄성 스님의 제15주기 추모 다례제가 6월 21일 충북 괴산 낙영산 조계종 공림사에서 봉행됐다. 다례제에서는 탄성 스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공림사 중창공덕비 제막식’도 함께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금오문도회 운영위원 스님들과 불교사 회주 성타 스님, 주지 종우 스님, 탄성스님 문도회 대표 도공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 신도회장, 이종호 공림사 신도회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진공당 탄성 대중사께서는 선종일체를 몸소 실천했고, 밖으로는 부드러우면서 내적으로는 매우 강인한 분”이라며 “입적하신 스님의 정신을 이어 받아 앞으로 정진하자”고 추모했다.

괴산 공림사 중창주인 탄성 스님은 법주사 주지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역임했고 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 98년 조계종 사태 당시 전국승려대회 대회위원장 등을 맡아 개혁종단의 출범에 큰 공을 세웠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초판 22세의 스티디 셀러!!

삶은  
삶이  
아니다

10,000원  
A5 / 287쪽

#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삶이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한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http://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천수경(한글/영어)